

# 호주 신대륙 노크하는 아모레... 뷰티계 '캡틴 쿡' 될까

〈호주대륙 발견한 영국 탐험가〉

**호주 래셔널그룹과 파트너십 계약**  
中 해외매출 불균형 구조 개선  
오세아니아 스킨케어시장 개척  
세포라 매장 800개 이상 입점  
이니스프리·설화수 등도 선봬



래셔널 매장 전경.

아모레퍼시픽그룹이 럭셔리 스킨케어계 '캡틴 쿡(호주대륙을 발견한 영국의 탐험가)'이 됐다. 한한령(限韓令·중국 내 한류 금지령)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타격을 입은 아모레퍼시픽이 오세아니아 뷰티 시장 개척을 통해 '럭셔리'한 중흥기를 꿈꾸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호주 럭셔리 스킨케어 전문 기업 '래셔널그룹'과 지분 투자를 동반한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오세아니아 시장에서의 럭셔리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맞춤형 화장품 솔루션 분야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셈이다.

### ◆균형있는 해외시장 개척

아모레퍼시픽이 오세아니아에 시선을 두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8년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대표 브랜드 설화수를 필두로 중국에서 K뷰티를 선도하며 성장 가도를 달려왔지만, 지난 2017년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시작된 중국 정부의 한한령을 계기로 판도가 급격히 변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중국시장이 당사 해외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불균형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던 아모레퍼시픽 그룹에겐 오세아니아는 주목할만한 시장이었다. 화장품 수요에 비해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외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가 많고 햇살이 강한 오세아니아의 스킨케어제품 시장은 발달했다. 반면 스킨케어 시장은 미개척지인 상태였다. 2018년부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점차 스킨케어제품이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뷰티 업계에서는 오세아니아 지역은 블루오션으로 평가

받고 있다. 스킨케어제품에 강세를 두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8년 초 호주 법인을 설립하고 그해 3월 '라네즈'의 호주 화장품 편집숍 세포라 입점을 시작으로 6월에 '이니스프리', 10월에 '아모레퍼시픽', 올해 3월 '설화수'를 차례로 선보이면서 오세아니아 시장을 공략해나갔다. 2020년 5월, '세포라' 기준으로 800여 개 이상 매장에 입점해 있다. 래셔널 그룹과의 계약을 통해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채널은 더욱 확대된다. 래셔널 그룹은 호주 전역에서 15개의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 주요 병원, 브랜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한국·영국·미국·홍콩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럭셔리 스킨케어 선점

이번 협력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의 부족한 럭셔리 스킨케어라인업을 채우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일각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라이벌 사 LG생활건강에 밀려 럭셔리 코스메틱 라인에서 입지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달 1분기 실적을 발표한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전체 매출은 줄었지만, '숨' '후' '오후' 등 초고가 화장품 시장의 성장으로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초고가라인업이 부족했던 아모레는 전반적인 화장품 매출 타격이 컸다.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줄어든 1조 2793억 원, 영업이익은 67% 감소한 679억 원을 기록했다. '설화수'와 '아이오펜' '헤라'가 국내와 중국에서 예전 명성을 유지하고 못한다는 분석이다.

호주 현지에서 라네즈와 이니스프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단계지만 럭셔리보다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지된다. 럭셔리라인 설화수와 아이오펜이 진출해있지만 아직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전략은 오세아니아에서 시작단계인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 통해 럭셔리 스킨케어라인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호주에선 아직 독점하고 있는 럭셔리 스킨케어라

인이 없는 데다, 래셔널 그룹은 피부 측정과 진단, 고객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지에서 급성장 중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아이오펜에서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빠르게 시장에 진입했지만, 글로벌 시장은 결이 달라 자사 브랜드를 런칭하고 마케팅하는데 함께할 글로벌 브랜드가 필요했다. 마침 래셔널 그룹은 호주시장을 선도하는 데다가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파트너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비해서는 시장규모가 작지만, 코로나를 비롯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매출 추이 변화를 경험하며 마냥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학습했다. 오세아니아는 성장가능성이 큰 시장이기에 높은 기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그룹에게 새로운 해외 전략 구상은 불가피하다. 1분기 해외사업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적자 전환했다.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다. 특히 중국 법인의 타격으로 아시아 사업 매출이 31% 급감한 3456억 원에 그쳤다. 오세아니아 시장 공략이 영업의 3년 연속 역성장하며 전성기 대비 반 토막 난 아모레퍼시픽의 동아줄이 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서호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금융위, ETF·ETN 건전화 방안

# ETF 묻지마 투자 막는다... 예탁금 1천만원

신용거래 대상 제외, 차입투자 차단  
위탁증거금 100% 징수 의무화 등

앞으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 등을 사려면 예탁금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신용거래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ETN은 저가주로 전략하면 액면병합을 할 수 있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면 조기청산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ETF·ETN 시장 건전화방안을 발표했다.

ETF·ETN은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외환,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소액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장 상품이다. ETF는 시가총액이 50조원을 넘어서며 대표 공모펀드로 급성장했고, ETN은 ETF 운용이 어려운 틈새 시장 역할을 해왔다.

금융당국이 이런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해 규제에 나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쏠림현상이 극심해지면서다.

금융위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유가가 급락한 이후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원유 관련 상품거래가 대폭 늘고, 상품의 위험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의 추종매매가 급증했다"며 "증권사나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의 투자경고, 거래정지 등의 조치에도 투기수요가 진정되지 않음에

(ETF·ETN 시장개선 방안)

추진 방향	추진 과제
과도한 투기적 수요 억제	·레버리지ETF·ETN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 마련 ·레버리지ETF·ETN의 기본예탁금 도입 ·레버리지ETF·ETN의 사전교육 의무화 ·ETN 액면병합제도 도입
과리율 관리의 효율성 제고	·거래소의 시장관리 기능 강화 ·ETN발행사 과리율 관리 의무 강화 ·ETN발행사의 최소 물량 보유 의무 도입 ·ETN 조기청산 허용 ·긴급상황시 ETN 적시 공급 체계 마련
다양한 ETN 출시환경 조성	·시장대표지수 ETN허용 ·해외주식 직구수요 흡수를 위한 ETN 출시 ·ETN 자진상장폐지 요건 완화

/자료=금융위원회

따라 시장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투자자의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해 과생상품투자자수반되는 레버리지(±2배) ETF·ETN에 대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도입한다.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해 차입 투자는 막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를 의무화한다.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3분기 중으로 내재된 위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상장심사, 투자자 진입규제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도입한다.

ETN의 액면병합도 허용한다. 지표

가치가 하락하면서 저가주로 전략해 발생하는 투기수요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과리율 관리도 강화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 시장관리대상 요건은 기존 과리율 30%에서 국내 기초자산 6%, 해외 기초자산 12%로 대폭 강화한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로 바꾸고, 과리율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

발행사(LP)에게는 최소 유동성 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준다.

과리율이 급격하게 확대되거나 기초자산의 산출이 안될 때는 발행사가 ETN을 조기청산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ETF 줄소송, 법률적 문제 없어"

금융위, 일문일답  
"7월 시행... 그전까지 3+1대책 유효"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ETF·ETN 시장의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불거지고 있는 국제유가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줄소송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자산운용사가 기초자산을 최근월물에서 근월물로 변경하는 과정(롤오버)에 있어서 법률적 검토와 당국과의 협의가 있었다"며 "자체 법률 검토 결과 큰 문제는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 당국에서도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거래소에서 시행하는 3+1 대책은 앞으로도 유효한가. 그리고 과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를 한다고 했는데, 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는지.**

"건전화 방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7월 전까지는 거래소 시장의 3+1 대책은 유효하다. 7월부터는 국내 기초자산 6%, 해외 기초자산 12%를 초과하는 것이 3일 3번 이상 지속될 경우 단일가 매매로 전환한다. 다만 매매거래 정지에 대해서는 거래소에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거래소와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매매거래 정지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금융위원회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ETN 조기청산을 허용한다고 했다. 현재 레버리지 ETN에는 적용이 가능한가.**

"현재 ETN 조기청산은 가능하지 않다. 앞으로 규정개정과 신고서 개정을 통해 조기청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투자자의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기본예탁금 제도와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다. 그럼 기존투자자는 예탁금과 교육이 소급 적용되는 건가.**

"현재 ETF·ETN을 투자하고 있는 계좌 수가 약 120만 계좌다. 기존투자자도 동일한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가지 전산상의 부담과 기존 투자자에 대한 보호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계와 상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다. 소급적용할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부분은 어떻게 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유리 기자 yu115@